

##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례로 보는 개선의 필요성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김영홍

수수료만 내면 누구나 자유롭게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익명, 가명도 허용했던 시절이니 1990년까지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1번 국민, 2번 국민임을 확인하는 (간첩이 아님을) 숫자에 불과 했습니다.

1991년 읍,면동 사무소에서 행정전산화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타인의 열람과 교부를 제한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는데, 이는 디지털 정보사회로 이행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중요 개인정보가 복사되었을 때의 피해를 인식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주민등록번호'는 유출과 무한 복제, 무한 사용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개개인의 지게 되고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 내부 공모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유통

● **1991년.**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되자마자 채권 공갈단(당시 검찰의 발표된 범죄조직명칭)과 경찰이 공모해서 **15만명**의 주민조회전산망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 사건. 서울 남부경찰서 대공과소속, 마포경찰서 정보과소속 경찰관 및 공갈단 21명 구속.

검찰조사결과 경찰이 지난 한해 동안 실시한 컴퓨터조회는 수배조회 2천8백만여건, 주민조회 2천5백만여건 등 모두 9천5백만여건으로 나타났다고 경향신문(1991.3.20.) 보도

● **1994년.** 공무원과 DM(광고우편발송 업체)업체와 공모 **292만건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국세청 88년 소득세 자료 1백10만건, 서울시 91년 종합토지세 고지내역 1백10만건, 92년 BC카드가입자 명세서 50만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91·92년 연금가입자 자료 22만건 등 2백92만건) **유출, 유통** 사건 관련자 14인 구속. \* 정보저장매체가 마그네틱 테이프

● **1997년.** 당시 카드조회 업체 C&C 정보통신 **1만6천명의 신용정보 유출**사건. 주민등록번호등의 개인정보로 가짜 신용카드를 만들었던 사건. 관련자 5명구속.

## 해킹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유통

- 2000년. 3개업체(고객관리 대행업체, 인터넷쇼핑몰 가격정보 제공업체, 인터넷 애니메이션방송사) 해킹으로 약 50만건의 ID와 비밀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2명 구속
- 2000년. 인터넷 사이트 46곳을 해킹하여 630만명의 회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출신학교 등의 개인정보 유출. 1명 구속

## 기업이 불법적인 개인정보 판매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유통

- 2001년. 네띠앙 회원 15만명등 27개 인터넷 업체들이 93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집·직장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L, S카드사, Y생명보험에 불법 판매.  
2개사 대표 불구속 기소, 27개 업체 대표,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 기소 및 15개사는 정식기소(회사대표 1000- 1,500만원을 선고, 직원 500~1,000만원 벌금선고)
- 2001년. BC카드, 국민카드, 다이너스 카드 고객 개인정보(이름,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이용한도) 보험사에 불법판매 사건.

BC카드 법인과 이모(51)이사, 국민카드 법인과 최모(41)TM팀장 벌금 3,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이너스카드 법인과 권모(41)TM팀장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당시 검찰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당시 정무위 김부겸의원(금융감독원 자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판매 수익규모는 아래와 같다.

<p>*(개인정보판매대금) BC카드와 외환카드는 지난 3년간 각각 27억6,000만원과 14억 6,000만원을 ,국민. 다이너스 카드는 지난 한해에만 각각 1억4,000만원과 5,000만원등 54억원의 수수료 수익</p> <p>*(개인정보구입대금) 라이나생명은 29억9,400만원, 신한생명 23억3,000만원, SK생명은 4,200만원, 교보생명은 2,200만원 등을 카드사에 지불</p>
--

- 2003년. 듀오(결혼정보회사) 해킹을 통한 30만명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가족관

계, 종교, 배우자 이상형, 연봉, 성장기 유출 사건. 1명 구속, 2명 불구속

● **2003년.** 게임-영화사이트 가입자, H신용카드 가맹점주 200만명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카드업자에 유출. 4명 구속. 1명 입건

**합법을 가장한 개인정보매매 대기업 등장과 모든 불법적인 유형이 다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유통**

● **2003년.** SK가 자사가 보유한 **1700만명**의 OK캐쉬백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이름,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까를 신한생명에 제공. (국민일보 2003년 10월 23일 보도)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2월 OK캐쉬백을 운영하는 SK 마케팅엔컴퍼니가 2008-9년까지 일어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일부 회원의 경우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의 법률 위반으로 1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OK캐쉬백은 아직도 59개 회사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 위탁하고 있다.

● **2003년.** 대기업, 대학, 관공서 등 15개 사이트 해킹으로 **66만명**의 개인정보유출(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4명 구속 1명 불구속.

● **2004년.** KTF **92만명** 개인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유출과 SK 이동통신 15만건의 고객 개인정보, 국내 보험회사 고객정보 5백만건 등 **515만**건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사건. 3명 구속, 12명 불구속

● **2004년.** EBS EBSi 회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보도자료를 내면서 최고령 및 최저나이 이용자 **260여명**의 ID와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보도자료 배포.

● **2004년.** OK캐쉬백(Cashbag)' 카드회원 **2000여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현금처럼 사용되는 6600만점(1점당 1원)이 주인들도 모르게 도용. 1명 구속

● **2005년.** SK텔레콤 가입자 개인정보 95건, KTF 42건, LG텔레콤 35건, KT 28건 등 총 **200여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심부름센터 등에 판매.  
LG텔레콤 벌금 3000만원, KTF 2000만원, KT 고객관리 하청업체인 (주)MPC 1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 현직 경찰 1명 및 8명 불구속 기소.

● **2005년.** 리니지(NC소프트) 계정과 비밀번호 유출사건으로 경찰측 추산(이 사건은

2006년에 최종 결과가 나왔다.)으로 122만건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피해 발생

### 초고속인터넷망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증가

- 2006년. 개인정보를 판매하려다가 경찰(전북)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CD와 컴퓨터에 KT, 하나로, 데이콤, 두루넷, 온세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고객 3백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비스가입일자와 설치장소, 상품명, 약정기간) 발견 압수. 1명 구속 6명 불구속.
- 2006년.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원 100만명의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해킹을 통한 유출. 1명 구속
- 2006년. KT,하나로,두루넷,온세통신 771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시중에 불법 유출. 3명 구속, 9명 불구속.
- 2006년. 이동통신사 고객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과 의사면허증 사본 등) 27만건 유출. 1명 구속 7명 불구속
- 2006년. 국민은행이 자사 회원 3천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자사 회원 3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가 담긴 파일을 첨부한 사건발생.
- 2006년. 결혼정보업체 해킹으로 57만명의 개인정보(이름.주민번호.휴대폰 번호 등) 유출 1명 구속.

### 불법 대출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증가

- 2007년. 허위의 인터넷 대출사이트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장정보, 예금통장 사본 등) 231만건을 상위 중개업체와 사금융사들에게 제공, 알선중개료 명목으로 25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6명 구속 28명 불구속
- 2007년. 하나로텔레콤과 KT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730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도용해 자회사 포털사이트 2곳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사건.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연령별, 이용 상품별로 고객을 구분, DB자료를 만들어 제3자에게 유통. (약 600만명의 개인정보

보 8500여만 건을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 300억원의 부당이익 얻었다는 경찰 발표. KT와 하나로텔레콤 임직원 26명과 위탁 모집업체 5곳 관계자 40명 불구속. 방송통신위원회(2008) 이 사건으로 하나로텔레콤에 과징금 1억48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

● 2008년. 옥션 1천863만명(2010년 3월에 피해규모가 확정) 고객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해킹 사건

● 2008년.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교원 4만여명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재직상태, 등) 엑셀화일이 두달동안 방치되는 사건.

● 2008년. GS 칼텍스 고객 1천151만7천125명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가 담긴 CD 발견. GS 칼텍스 자회사 직원이 유출 4명 1년6개월 1년 실형 선고

● 2008년. 네이트 3500만 회원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해킹 사건.

● 2008년. S은행, C은행 3만1천여명의 고객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출내역, 회사의 부서 및 직급) 유출 2명 구속 23명 불구속

● 2009년. 불법 대부업체 수사 과정에서 150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장, 특히, 2만건은 주요 기업의 대표 개인정보 2만건이 포함) 유통 확인. 2명 구속

● 2009년. 금융감독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4300여명의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담긴 엑셀화일 1년간 노출.

● 2010년.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된 각종 ID와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650만 건의 개인정보 유통 및 골프장과 콘도 회원 14만명의 개인정보(회원권 분양 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출 사건 1명구속 26명 불구속

● 2010년. 티처원(교원 연수기관) 1만여명의 공립 초등학교 교사 개인정보(소속학교,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강좌명, 연수일시, 소속 교육청) 유출

● 2010년. 중국해커와 공모해 금융 대출 사이트와 도박·성인 사이트, 쇼핑몰 등 국내 152개 사이트를 해킹 680만건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호) 유출(부산 경찰) 34명 불구속(서울 경찰)

● 2010년.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된 25개 온라인 사이트(아이러브스쿨, 대명리조트, 러시앤캐쉬, 현대캐피탈, 씨티파이낸셜, 제일캐피탈, 하나캐피탈 등)의 회원 개인정보(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2000만 건이 시중 유통(인천 경찰) 1명 구속 2명 불구속

● 2010년. 불법으로 취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계정에 접속해 150여만 건의 각 계정 이용자(네이버, 다음, 네이버, 야후, 피망, 하나포스) 개인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D, 비밀번호) 유출. 1명 구속

● 2011년. 시중은행의 현금 입출금기(ATM)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2000만 건의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입출금한 수표의 번호, 송금받은 사람의 이름, 거래 지점 등)가 기록된 하드디스크 450개 유출 2명 불구속

● 2011년. 세티즌 해킹으로 인하여 140만명 회원 개인정보(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유출

● 2011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관리 소홀로 이미자, 조용필, 이승철, 이효리, 아이유, 2PM 등 유명 가수들을 포함한 회원 4천6백명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유출

● 2011년. 용산구청에서 43만명의 호적등본 파일(이름, 주민번호, 본적, 가족사항)이 저장된 외장 하드를 분실

● 2011년. 삼성SDS 협력업체 직원에의하여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명의 이름, 주민번호, 여권번호, 여권발급일·만료일 등 개인정보 유출. 당시 김황식 총리,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국회의원 등 관용 여권을 신청한 공무원 4600여명의 정보도 포함됐다. 국정원(65명), 국방부(999명), 육군본부(285명), 경찰청(39명) 등 신상 자체가 보안사항인 안보 부서 당국자들도 상당수 포함

● 2011년. 메이플스토리(넥슨) 백업서버 해킹 1천320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7억71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2011년. 하나SK카드 직원이 SK텔레콤 휴대폰 할부구매고객 9만7000여명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스마트폰 할부채권 정보) 유출 1명구속 2명 불구속

- **2011년.** 엡손 **36만명**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해킹으로 유출 방송통신위원회 3300만원의 과징금 및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2011년.** 개인정보 불법 매매 수사를 통해 각종 시중은행, 신용카드사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 **1900만건**의 유통 적발 (부천 경찰)  
3명 구속
  
- **2011년.** 현대캐피탈 **175만건**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해킹으로 유출, 2명 구속
  
- **2012년.** KT 가입자 **873만 435명**의 고객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기종등) 유출. 5명 불구속 방송통신위원회 7억 5300만원 과징금 부과
  
- **2012년.** 산와머니 **203만 2524건**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증인 정보) 벌금 2천만원 약식기소 2명, 산와머니 대표 불구속(이후 무죄 판결), 검찰이 개인정보의 다운로드를 입증 못함
  
- **2012년.** 법무부 교정청 사이트 해킹 법무부 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소속, 연락처, 직책, 주민번호 등) **2461건** 유출 1명 구속
  
- **2012년.** 하이투자증권, 대출자 **2300명**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최초대출일자 및 최종 변동일자, 대출잔고) 유출
  
- **2012년.** 문자발송대행업체 N사가 출처불명의 유권자 **1500만명**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출마자들에게 선거홍보 대행한 사건. 선거 후보자 374명이 100만~2000만원을 지불하고 N사의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 (경기 경찰) 2명 불구속 입건
  
- **2012년.**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한 **550만건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전화 번호, 이동통신 가입일과 거주지역, 금융사에서 빼낸 정보에는 채무관계 정보도 포함)유통 1명 구속 9명 불구속
  
- **2012년.** 새누리당 당원 **200만명**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유출. 당 사무국 직원이 문자발송업체에 유출

- 2012년. 인터넷 경품 이벤트에 응모 회원 795만명, 쇼핑몰 회원 380만명의 개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회원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게 5-6억원을 받고 유출. 텔레마케팅 업체는 보험사에 13억원에 되팔. 5명 불구속
- 2012년. 무주리조트 회원 개인정보(아이디와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40만 1700건 해킹 유출
- 2013년. 불법 유통되고 있는 1600여만명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업)을 이용하여 대출(무려 1600여만명에게 사기 문자를 보냈다고 함)사기.(대전경찰) 78억원의 부당이익. 3명 구속, 27명 불구속
- 2013년. 한화손해보험 현장출동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15만7901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가 해킹·유출
- 2013년. SC·씨티은행 고객 개인정보 13만건 유출등 금융권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직장명,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계좌, 카드번호 등) 대출 모집인에게 60만건 유출.
- 2014년. KB 국민카드에서 5천300만건, 롯데카드에서 2천600만 건 그리고 NH 농협카드에서 2천500만 건 등 약 1억4백만건의 개인정보(성명,이메일,휴대전화,직장전화,자택전화,주민번호,직장주소,자택주소,직장정보,주거상황,카드이용실적,카드결제계좌,카드결제일,카드신용한도,카드신용등급 등)를 신용평가회사 KCB 직원이 유출
- 2014년. 네이버 가입자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20만건 해킹 유출. 도용된 개인정보를 이용 카페·블로그 방문자 수 증가에 활용. 1명 구속 4명 불구속

위에 언급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을 다 더하면 약 3억 7천 4백만 건이 됩니다. 이는 최소의 수치일 뿐입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되어 ▲심부름 센터의 사생활 조사, ▲불법채권추심, ▲이동통신사 가입자 모집 마케팅,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모집 마케팅, ▲대출 사기, ▲대부업체 마케팅, ▲선거 후보자 홍보, ▲카드사 모집 마케팅, ▲보험 모집 마케팅, ▲각종 타겟 광고 마케팅 ▲각종 사기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에게 정신적인 피로감을 주고 있으며 각종 사기 위협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 거부 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적인 범죄로부터 수집된 최소 3억 7천 4백만 건의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해 주겠다는 막장 행정입니다.

우선 유출된 주민번호는 정보주체가 요구할 때 변경해주어야 하며, 개인정보(연령과 생일, 성별, 지역)가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무의미한 번호 체제로 변화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다목적 이용을 금지하고 최소한만 이용하고 목적별로 다른 번호(운전 면허, 여권번호, 건강보험번호, 납세 번호 도입 등)를 사용하게 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